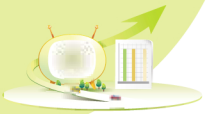
4월 광고경기 전월 대비 호전 전망



4월 국내 광고경기는 전월인 3월에 비해 호전될 전망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이후 KOBACO)는 국내 4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광고경기 예측지수(KAI)를 조사한 결과 4월 예측지수가 128.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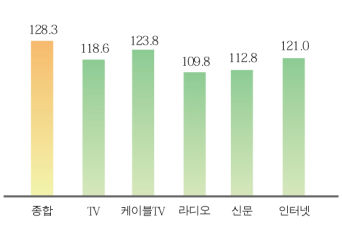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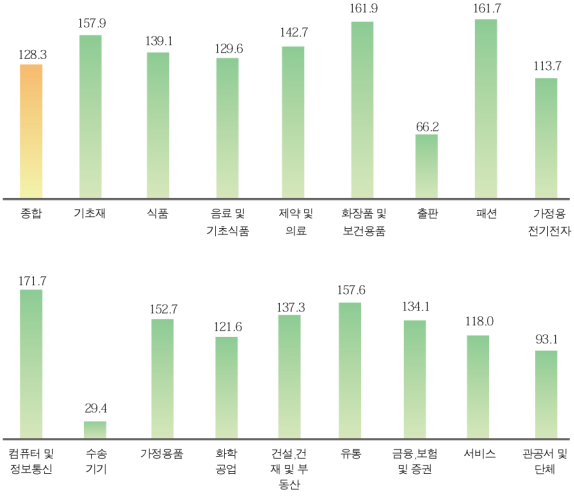
월별 KAI가 100을 넘을 경우 전체 광고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이고, 100 미만은 광고비 감소가 예측됨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봄철 신제품 출시 및 신규 캠페인 전개 등 계절적 요인과 함께, 3월 업프론트 판매 이후 광고주들이 본격적인 광고활동을 전개하면서 전체 업종에 걸쳐 고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KOBACO측은 분석했다. 특히 행락철을 맞아 아웃도어 시장의 활발한 광고활동이 예상되며, 쿠팡,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 업체의 광고활동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매체별로는 TV(118.6), 케이블TV(123.8), 라디오(109.8), 신문(112.8), 인터넷(121.0)로 조사됐으며, 업종별로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171.7), 화장품 및 보건용품(161.9), 패션(161.7) 업종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출판(66.2), 수송기기(29.4), 관공서 및 단체(93.1) 업종은 약세가 전망됐다.

광고경기예측지수조사(KAI : Korea Advertising Index)는 방송광고비를 포함한 국내 주요 광고매체의 경기변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광고산업 경기를 진단할 목적으로 매월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광고주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있다.

<표 1> 매체별 광고경기 전망



<표 2> 업종별 광고경기 전망